

# 문화 불모지에 일구는 서점문화

‘진솔문고’ 흥기성 사장



흥기성 사장.

“누구라도 좁거나 더울 때 한번 쉬었다 가는 만남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소비의 거리로 유명한 강남의 요지에 대형 복합서점으로 문을 연(6월 21일 개점) 흥기성 사장(62)이 진솔문고 첫 출발에 거는 기대는 소박하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100여 미터 남짓 떨어진 진솔빌딩 지하 1층에 자리한 진솔문고는 1500평 규모에 20만종 80만권의 장서를 갖춘 대형서점이다.

진솔물산을 경영하며 신축빌딩을 지은 후부터 줄곧 지하매장을 어떻게 꾸밀까 고민했던 흥사장이 ‘서점’을 결심한 데는 학자인 부친이 어렸을 적 책 행상으로 고학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근처에 각종 학원이 밀집해 청소년들이 많지만 막상 창조적이거나 건전한 문화보다는 성인들의 유희문화를 모방한 ‘고약한 동네’라는 생각도 ‘서점’의 결심을 부추겼다.

강남의 지역적 특성은 진솔문고의 기능과 역할에 몇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도록 팬시용품을 갖춘 대형 문구점과 음반점, CD 롱 코너 등을 400평 정도의 꽤 넓은 공간(3층)에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다. 또 책이 있는 곳에서 마음껏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안락한 의자도 마련했다.

둘째는 강남 일대와 성남, 분당에 이르는 새로운 독서인구를 창출하겠다는 점이다. 주변에 밀집한 학원가의 학생들과 직장인, 수원·반월 등 수도권 대학 통학생 등을 고려해, 교재와 전문서적, 정기간행물과 외국서적까지 두루 갖췄다. 이벤트홀에서 펼쳐질 <영화감상회> <뮤직비디오 감상회> 등 각종 행사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기존 서점인 ‘동화서적’이나 ‘서움문고’, 새로 생긴 ‘씨티문고’ 등과 함께 서점타운을 이뤄 강남에 새로운 서점문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점 첫해인 올해는 ‘진솔문고’가 강남의 지식정보 센터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았던 만큼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길 기대한다. 내년부터는 사보형식의 도서정보지 <진솔 스토리>(가제)도 발행하고,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 새로운 형식의 전자서점도 개설할 계획이다. — 김지원 기자

# 젊음의 거리에 부는 ‘책방’ 풍경

‘시티문고’ 송영석 사장

지난 11일 문을 연 ‘씨티문고’를 주목하는 시선의 큰 줄기는 이 서점이 유동인구 20만 이상인 소비거리 강남 요지에 자리했다는 점, 잇따라 히트작을 펴낸 베스트셀러 출판사의 투자로 설립됐다는 점이다.

“이젠 서점도 상권의 중심지에 들어서야 합니다. 다른 상업품목에 서점이 밀리면 불황의 악순환은 계속되지요. 독자의 손길이 쉽게 닿는 곳에 서점이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 ‘해냄’의 대표이기도 한 ‘씨티문고’ 송영석 사장(45)은 이제 더 이상 책이 비영리상품으로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강남 전철역 부근 씨티빌딩 지하 500평에 25만권의 장서로 인근 독자를 끌어들이 씨티문고 주변의 분위기는 젊다. 극장과 학원, 패스트푸드점, 볼링장이 있는 빌딩 주변은 젊은이의 거리답지만, 이제 씨티문고가 들어서면서 더욱 생명감 넘치는 분위기로 바뀔 듯하다. 매장 역시 나무색과 파스텔톤의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로 단장했다.

컴퓨터 세대가 주된 독자층임을 고려, 일반서적 외에 컴퓨터 서적 코너는 더욱 충실한 목록을 갖췄다. 컴퓨터 시스템의 도서안내는 물론 24시간 이내 도서예약판매와 통신판매, 택배 서비스도 실시한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기능을 넘어서 지역문화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문화행사와 특별 이벤트의 비중을 크게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이미 개점 이후 3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책사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씨티문고의 이벤트는 풍성하다. 문학 건축 미술 민속 만화 미디어 등 여러 주제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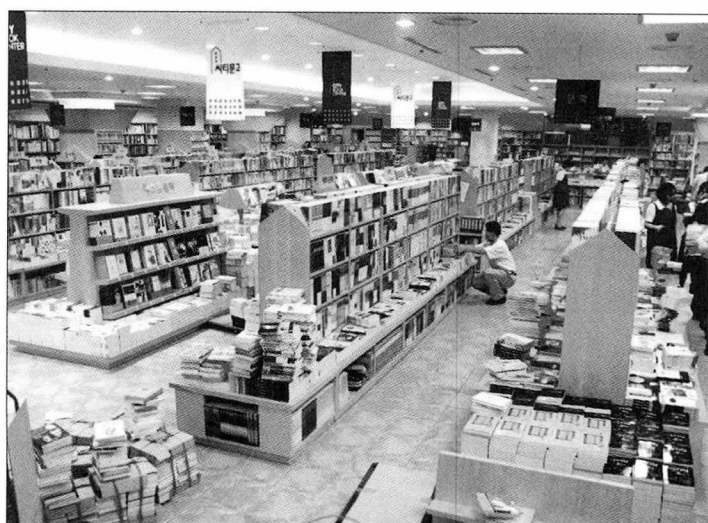
송영석 사장.

눠 대표적인 저자들과 함께하는 ‘만남 그리고 이야기’가 6월 21일부터 9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유홍준 김석철 전유성 마광수 이면우 이찬진 이현세 등 굵직한 저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 지역주민 대상의 ‘주강현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기행’도 계획중이다.

100평 규모의 씨티문고 2호점은 성북구 돈암동에 내년 2월쯤 선보이게 된다. 성신여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젊은이의 거리’에 ‘책방’은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으리란 게 송사장의 예감이다. 이제 서점은 젊은이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 김지원 기자



6월 21일 개점을 앞두고 서가 단장이 한창이다.



깔끔한 인테리어로 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춘 씨티문고.